

1. 일본 물관리에 관한 동향

- 일본의 물관리 행정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수도법, 수질오탁방지법, 지하수법, 하수도법, 하천법, 특정 다목적댐법, 공업용수법, 토지개량법 등이 있음.
- 용수 목적별로 법령들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목적별 원수와 처리수의 적용 법령이 다른 것이 특징이며, 지금까지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 정책에 대한 토대가 되는 이념이나 방향성을 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음.
- 하천은 국토교통성, 공업용수는 경제산업성,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성으로 소관이 분화되어 물 순환의 통합적인 관리 및 유역 단위, 지역 주도의 수자원 보전을 위한 체제 및 계획이 충분한 상황에 있지 못하였음.
- 일본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우려 등 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 2008년 6월 학자, 시민,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「물 개혁 국민회의」를 설립하고 물관리에 있어 이러한 수직적 행정의 폐해문제를 제기하고 물 행정의 통합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호소함.
- 이 회의는 계속되어 자민. 민주. 공명당 등 의원들의 「물 개혁 의원 연맹」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
- 이와같은 경과를 밟아 2013. 6. 기본 법안이 제출됐지만 심의가 되지 않아 폐기되었다가, 최근 다시 법안이 제출돼 2014. 3. 27.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.

2. 일본 물 순환 기본법의 개요

- 물을 ‘국민 공유의 귀중한 재산’으로 자리 매김하고, 법률로 규제되지 않았던 지하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에 포함됨.
- 동법에서는 물에 관한 시책의 소관이 제 각각인 종적 관계 행정의 폐해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내각에 '물 순환 정책 본부'를 설치하고 수자원을 일원적으로 관리.보전 하는 체제를 취했음.
- 특히 도도부현에 걸쳐있는 하천 유역의 물 순환을 총합적이고 일체적으로

관리하는 것이 특징임.

- 법의 목적을 “물 순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추진, 이를 통해 건강한 물 순환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고 일본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 함” 에 두고, 물이 증발, 강하, 유하 또는 침투에 의해 해역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표수, 지하수로서 하천의 유역을 중심으로 물의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된 상태에서의 건강한 물 순환을 이루도록 관리하기 위함임
- 기본이념은 물 순환의 중요성, 물 공공성, 건강한 물 순환에 대한 배려, 유역의 종합적인 관리에 둠
- 물 순환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총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물 순환 정책 본부를 설치하여 물 순환 기본 계획 방안 수립, 관계 행정 기관이 실시하는 시책의 종합 조정, 이 외 물 순환에 관한 시책에 중요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및 총합 조정하도록 하고, 물 순환 정책 본부장은 총리가 담당토록 함

3. 우리나라의 시사점

- 우리나라도 “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” 을 제정코자 환경부에서 2007년에 공고 함
- 제정이유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빗물의 지하침투 저조, 증발의 자연적인 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고갈, 도심하천의 건천화, 도시침수 및 하천수질오염 유발 등 도시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작용 심화를 관리하고 아울러,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 순환의 균형을 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
- 주요내용은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의 수립,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수립, 물순환이용정책위원회의 설치 등, 빗물의 관리, 중수도시설의 설치·운영 등,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 등
- 그러나 빗물이용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안되어 물순환 부문이 빠진 중수와 하수재이용 중심의 “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” 로 추진 됨
- 일본의 「물 개혁 국민회의」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의 「물 개혁 포럼」 의

노력과 같은 모임을 6년간 추진한 결과로 시사점이 크며, 우리나라도 조속히 유역 물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물순환관리 등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